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결혼만족 근원의 유사점과 차이점

현경자* · 김연수**

본 연구는 기혼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정도와 만족의 근원을 조사하여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73명의 기혼자가 자기거입식 설문조사에서 보고한 결혼만족도와 결혼만족의 이유로 자유롭게 제시한 응답내용이 분석되었다. 남녀 응답자의 대다수가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았다. 내용분석을 통해 남녀 모두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한 것은 배우자, 가족, 자식 순으로 발견되어, 결혼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이 남녀의 결혼만족에 많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 제시한 결혼만족의 근원은 배우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현저하게 많았던 반면, 여성은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 및 자식, 생활상태나 경제적 안정 등도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결혼만족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분석을 통해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을 통해 행복, 사랑, 화목, 안정 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배우자, 자식, 가족 및 자기 자신 등 다양한 근원을 통해 이루어짐이 드러났다. 끝으

* 현경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김연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생.

로, 기혼자인 응답자들과 생활을 공유하는 배우자, 자식, 가족들의 성실성 등 인간적 됴됨이와 건강이 결혼만족의 이유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들은 여성의 응답 속에서 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결혼생활 만족에서 발견되는 보편성과 문화적 특성 및 성 차이에 대한 고찰과 임상사회사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1. 서론

결혼에 대한 만족은 기혼 남녀의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 결정적 요인이며(Myers & Diener, 1995),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의 구성원, 특히 자녀의 안녕과 건전한 발달을 유지 및 도모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Kitzmann, 2000). 예컨대, 결혼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감정의 하나로(Glenn, 1990), 기혼 남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함이 제시되며(Karney, 2001; Ryff & Singer, 1998), 결혼생활에 만족한 부부들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외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를 지킴이 보고되고 있다(Epstein et al., 1993). 따라서, 결혼만족은 결혼의 안정 및 해체 방지에 기여하는 주 요인으로 인식되어 결혼 및 가족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왔으나, 결혼만족의 근원과 특성을 밝히는 연구방법의 한계와 이론 개발의 미흡함으로 인해 많은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정현숙, 1997; Berscheid & Reis, 1998). 양적 연구방법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결혼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함이 지적되었지만(Sabatelli, 1988), 결혼만족의 근원이나 구체적 이유를 질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드물다.

결혼만족의 국내 연구를 보면 수적으로 두 부류가 우세하나, 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이나 구체적 이유가 질적으로 어떻게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는데 각각 한계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부류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응답자인 기혼자의 인구학적 특성(예: 교육수준, 나이), 결혼생활과 관련된 요인(예: 자녀수, 결혼기간, 의사소통), 또는 개인의 성격, 성역할 태도, 가치관, 대처전략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양적 연구들이다(예: 금혜선, 1984; 박태영, 1998; 송시내, 1999; 이영미·김정화, 1997; 이은희, 2001; 최규련, 1987; 현은민, 1996). 이들은 대부분이 기혼남녀를 구별하거나 부부를 모두 조사에 포함시키지만, 횡단 연구여서 결혼만족의 근

원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결혼만족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로, 이들은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결혼 만족의 차이를 하위차원 별로 보고한다(예: 김득성, 1986; 권정혜·채규만, 1999). 하지만, 이 역시 양적 연구여서 기혼남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의 주관적 근거를 엿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인이 결혼생활을 통해 느끼는 만족의 근원이나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서구의 척도에 포함된 특정 하위차원에 대한 응답이 저조할 경우 그 차원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기혼남자나 여자들이 그 측면의 결혼생활을 비교적 중시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정현숙, 1997).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의 어떤 측면과 요인이 기혼남녀에게 만족을 주는지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결혼만족의 근원과 서구의 결혼만족 척도가 간과한 부분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혼남녀와 그들 자녀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줄 수 있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나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권과 개인과 집단의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권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최근의 비교문화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다(Ingersoll-Dayton et al., 1996; Triandis, 1995). 따라서, 결혼 만족을 결정하는 이유들 간에도 문화적 차이를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결혼만족의 근원을 밝히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¹⁾

결혼만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결혼만족과 관련한 주요 변인을 조사하고,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하여 결혼만족에 대한 지식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으나,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내재된 독특성이나 질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밝히기 위해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사용하여 (1) 기혼남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조사하

1) 권정혜와 채규만(1999)은 서구에서 개발된 결혼만족 척도의 한국판 표준화 과정에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차원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고부갈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김충미, 1992, 권정혜·채규만, 1999에서 재인용) 결혼만족의 근원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고, (2) 이들이 느끼는 만족의 이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인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과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여, 부부와 가족을 위한 사회사업실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뜻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요소를 응답자의 입장에서 파악하므로 기혼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 만족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며, 궁극적으로 결혼만족에서 발견되는 보편성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2. 문헌 고찰

1) 결혼만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시각

결혼만족은 결혼에 대해 개인이 가졌던 기대와 그것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순수한 인지적 평가로 보기보다 그 과정 속에 감정적인 경험이 수반되므로 감정 또는 태도로 정의되며(Campbell et al., 1976; Veroff et al., 1981), 개인의 지각이 분석의 단위가 된다(Spanier, 1976). 결혼만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은 만족의 근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결혼만족 척도(*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개발한 Roach et al. (1981)은 결혼만족을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호감도로 정의한다. 부부 중심의 서구적 결혼관이 반영된 이 정의는 결혼 만족의 근원을 배우자와 배우자와의 관계로 규정지어 결혼과 결혼생활에 내재된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결혼만족을 좀더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경우이다. 결혼만족을 결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반응(Burr et al., 1979), 또는 결혼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험되는 행복, 만족, 기쁨과 같은 배우자의 주관적인 감정으로(Hawkins, 1968) 정의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가치관, 준거틀, 목적 및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족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Campbell et al., 1976; Diener & Suh, 2000). 따라서, 결혼만족의 개념은 가치 및 문화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포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정현숙, 1997),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느낌, 신념, 인상 등이 반영된 긍정적 감정 또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즉, 결혼만족을 총체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보고, 만족의 근원을 규정하기보다 만족을 결정하는 근원과 구체적 이유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지 탐색하였다.

2) 결혼만족과 성

결혼만족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꽤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결과 중의 하나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서병숙·김수현, 2000; 이동원·최선희, 1996; Bernard, 1972; Glenn, 1975). 이 같은 결과는 부부를 함께 조사한 경우뿐만 아니라(예: 최규련, 1987; 이정숙·박상희, 1994; Schumm et al., 1998), 기혼남녀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경우에도 발견된다(예: 금혜선, 1984; Atkinson, 198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대표성이 결여된 지역 표본이나 편이 표집에 근거하고 있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신중함이 요구된다.

학자들은 결혼이 여성에게보다 남성에게 만족스러운 이유를 결혼 후의 역할 분담과 남녀의 사회화 경험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사회적 성역할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결혼 후 남자에게 부과되는 역할이 여자에게 부과되는 역할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만족스러움을 지적한다(Bernard, 1972; Gove & Tudor, 1973). 전통적으로 부양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세력을 부여받지만, 자녀의 출산과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보상은 남성에 비해 낮아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보았다(Rodeheaver & Datan, 1985). 한편, 성역할의 사회화를 통해 습득한 남녀의 사회 기술과 행동 성향의 차이도 결혼만족의 성 차이에 기여함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관계 지향적 성향을 발달시키지만, 남성의 사회화 과정은 독립지향적 성향을 발달시킨다(Gilligan, 1982).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자기 표현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기술에 능하게 되며, 이는 여성이 결혼 후 배우자의 정서 및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Thompson & Walker, 1989). 반면, 남성이 사회화를 통해 습득한 사회적 기술이나 지식은 독립적인 사회활동에 적절하지만, 관계 지향적인 여성 배우자의 높은 기대치와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미흡할 수 있음이 지적된다(Veroff et al., 1981). 결국,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를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쉬우며, 이것이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만족의 남녀 차이를 밝히는 근래의 연구들은 예전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Clements et al. (1997)은 100쌍의 부부집단을 1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일관성 있게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음을 보고한다. 이와 비슷하게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남편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거나, 남녀의 결혼만족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예: Aron & Henkemeyer, 1995; Karney & Bradbury, 1995; Clements et al., 1997에서 재인용). Clements et al. (1997)은 이 같은 연구 결과의 변천이 아내의 지위에서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권 신장 및 근래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선행연구들은 결혼만족도에서 발견되는 성 차이가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주어, 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이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만족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Rhyne(1981)에 의하면 남녀의 결혼만족은 근원의 질 또는 종류에서 차이가 나기보다 만족의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²⁾ 그의 연구에서 결혼만족 지표의 총점과 지표에 포함된 하위차원의 점수들은 '성적 만족'을 제외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각 차원마다 가장 긍정적인 응답 항목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하지만, 각 측면의 결혼만족 정도를 가족생활 주기의 각 단계별로 구별하여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지표에 포함된 차원들이 그들에게 비슷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였다.³⁾ 예외적으로 '성적 만족' 차원은 여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남녀가 결혼만족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과 기대치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유일하게 시

2) 그는 결혼의 질 지표(*An Index of Marital Quality*)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사랑, 배우자의 관심, 부부간의 화목, 성적 만족, 배우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가사 도움, 배우자의 친구, 시가나 처가의 대우 등 아홉 가지 차원에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3) 또한, 단일 점수로 측정된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 지수가 남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결혼만족의 근원에 있어 남녀 차이가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사하였다.

한편, 15년간의 종단연구 자료를 통하여 결혼만족에 대한 응답패턴을 조사한 Clements at al. (1997)은 남녀가 결혼만족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보고한다. 결혼 초기나 결혼 수년 후의 모든 시점에서 남성의 결혼만족은 '결혼에서 느끼는 행복감, 결혼에 대한 후회가 없음, 애정 및 성생활에 대한 아내와의 일치 정도'에 의해 좌우됨이 일관성 있게 발견되었으나, 여성의 결혼만족은 남성의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요인들과 더불어 부부가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원가족이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대해 부부가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가가 여성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의 결혼만족은 배우자와 관련된 결혼생활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었지만, 여성의 결혼만족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여성의 관계중심적 성향이 결혼만족의 평가에도 작용하여 남성보다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복잡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Fitzpatrick (1988)이 제시한 결혼만족의 주 예측 요인, 즉 (1) 본인 및 배우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의 개인적 요인, (2) 직업 상태나 경제적 자원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3) 정서적 만족을 주는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요인 중 애정이나 정서적 만족을 주는 대인관계 요인이 남녀 모두의 결혼만족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⁴⁾

결혼 만족과 성의 관계를 밝히는 국내 연구들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척도 표준화(예: 김득성, 1989; 권정혜·채규만, 1999)나 탐색연구들(예: 이정숙·박상희, 1994; 서병숙·김수현, 2000)이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 결혼생활을 7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부부의 만족 정도를 측정한 이정숙 등(1994)은 남편 집단이 모든 영역—부부간의 의사소통, 애정 및 성생활, 가정 경제, 자녀 양육, 여가활동, 배우자 가족관계 및 건강—에서 아내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캔사스 결혼만족 척도를 검증한 김득성(1989)의 연구에서도 결혼생활,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4) 이 세 요인 중 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만족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선행 연구들이 많으나, 이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제외되었다.

남성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들 남녀 집단의 결혼만족 평균은 7점 척도의 5점 내외로 결혼만족의 정도에서 성 차이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서울 및 경기지역 기혼자를 조사한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여성의 결혼에 대한 불만족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척도의 하위차원 별로 보면 여성의 불만족이 특정 영역에서만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⁵⁾ 예외적으로, 성적 불만족 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만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 앞서 논의한 Rhyne(1981)의 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⁶⁾ 정리하면, 국내 연구들이 사용한 결혼만족 척도는 각기 다르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된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대부분 남성보다 낮음을 보였으며, 앞서 논의한 Rhyne(1981)의 연구처럼 척도의 하위 차원들이 남녀에게 비슷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양적인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결혼만족도의 성 차이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질적으로 탐색하는 시도를 결여하고 있어, 결혼만족의 평가 시 고려되는 사항이나,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배우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부부간의 역할인식에 대한 일치가 남녀 모두의 결혼만족에 기여함을 보여주며(최규련, 1987), 배우자나 본인의 특성(김영희, 1999 참조)과 대화 및 문제해결 등의 사소통 요인(송사내, 1999 참조)이 결혼만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하지만, 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한국인의 결혼만족 특성에 대한 통찰을 주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찍이 Campbell et al. (1976:331)은 결혼생활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경험이 결혼만족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므로,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결혼만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로 인해 Sabatelli(1988) 역시 결혼만족척도에 포함된 하위차원들의 경험적 근거가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국

5) 구체적으로, 정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공격행동, 공유시간, 성역할 태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양육 등 7개 영역에서 여성의 불만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경제, 원가족 문제 및 자녀 만족 영역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6) 이정숙 등(1994)의 연구에서 애정 및 성생활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았으나, 이들은 성생활과 애정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였으므로 Rhyne(198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어렵다.

내외 어디에서도 결혼 만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성별로 분석하여 결혼만족의 근원이나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서구의 결혼만족 척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결혼만족에 내재된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노력이 미흡했으므로⁷⁾ 한국의 기혼남녀에게 의미 있는 결혼만족의 근원과 구체적 이유를 탐색하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국내 추세(통계청, 2001)는 현대 한국인들이 결혼에 거는 기대와 결혼을 통해 얻는 만족의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⁸⁾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이들이 결혼만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내용을 함께 파악하여 만족의 질을 탐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연구질문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3) 연구 질문

첫째, 한국의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둘째, 한국의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의 근원(source)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의 기혼 남녀들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과 구체적 이유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3. 연구 방법

1) 표집 및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표본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4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1994

7) 권정혜와 채규만(1999)은 서구에서 개발된 결혼만족척도들의 한국판 표준화 과정에서 요인구조의 차이가 성별 또는 연령별로 나타난 사례들을 보고하며, 결혼만족의 검사에 있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8) 정현숙(1997)은 시집이나 환경적인 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보다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이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결혼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나 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비확률 표집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강북과 강남에서 각각 2개 구가 표집을 위해 선택되었다. 조사기관에서 파견된 60명의 조사자가 교육수준과 나이 및 성별의 비율에 따라 작성된 표집 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사대상을 찾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⁹⁾ 따라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본 연구에는 표본으로 추출된 연구 대상자 209명 중 기혼자라고 보고한 173명(83%)이 포함되었다.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별에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가 49.1%, 여자가 50.9%로 거의 비슷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 및 초기 중년층인 24세~36세가 27%로 중년층(37세~48세:38%) 및 장년층(49세~63세:34%)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67%인 반면 고졸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22.5%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족의 연간 소득 분포를 보면 40% 이상의 응답자가 2400만원에서 4800만원 사이의 소득을 보이는 중산층에 속하였다. 반면 가족의 연간 소득을 2400만원 이하로 보고한 응답자는 32.5%, 4800만원 이상이 24.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34.7%, 종교를 가진 사람 중 기독교가 28.3%, 천주교가 22.5%, 불교가 14.5%를 차지하고 있었다.

2) 측정

(1) 결혼만족도

응답자의 결혼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¹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1. 대단히 불만스럽다”에서 “5. 대단히 만족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가 이용되었다.

9)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와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비교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재미 한국인 이민자의 표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사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표집 틀이 이용되었다(표본추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yun, 1995 참조).

10)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을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주관적 느낌, 신념, 인상 등이 반영된 총체적 태도 또는 감정으로 정의하여, 단일 문항에 의한 결혼만족도 측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2) 결혼만족 이유

결혼만족의 근원과 구체적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위의 결혼만족도 질문에서 결혼 생활에 대단히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만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개방형 문항이 이어서 주어졌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수(n)	백분율(%)
성별	남	85	49. 1
	녀	88	50. 9
연령	24~36세	46	26. 6
	37~48세	65	37. 6
	49~65세	59	34. 1
	무응답	3	1. 3
교육수준	고졸 이하	39	22. 5
	전문대졸 및 4년제 대학중퇴	17	9. 8
	4년제 대학졸업	62	35. 8
	대학원 이상	55	31. 8
가족의 연평균 소득	2,400만원 미만	54	31. 2
	2,400~4,800만원	71	41. 0
	4,800만원 이상	41	23. 7
	무응답	7	4. 1
종교	종교없음	60	34. 7
	불교	25	14. 5
	천주교	39	22. 5
	기독교	49	28. 3

3) 분석 방법

하나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연구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연구 주제와 대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한다(Denzin & Lincoln, 1994). 따라서, 다양한 조사 및 분석방법의 동시 이용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며, 장려되고 있다(Mason, 1996). 본 연구도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함께 시도하여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1) 특히, 응답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결혼생활의 만족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결혼만족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 양적 분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탐색하는 연구질문 1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치 등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사용하였고, 결혼만족도의 성 차이는 t-검증을 통해 유의도를 산출하였다.

(2) 질적 분석¹²⁾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된 개방형 질문의 응답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2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이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 응답 내용을 양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김영천, 1999). 내용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비구조화된 의사소통 자료를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어떠한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이며(Weber, 1990),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현상

11) Mason(1996, 김두섭 역, 1999 : 48)은 일련의 연구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과 자료의 출처가 배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처럼 결혼만족이라는 사회심리 현상의 다양한 측면, 즉 만족도와 만족의 이유를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조사하는 경우나 한 연구현상을 다양한 방법이나 시각에서 조사하는 것들도 이에 포함된다.

12) 본 연구의 질적 자료분석에 도움을 준 김민지에게 감사한다.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분석방법이다(Rubin & Babbie, 1997).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을 위한 단위(또는 준거)로는 단어,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개념, 의미 등이 쓰이며(Weber, 1990),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어떤 개념적 틀이나 떠오르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유목화와 단어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혼만족의 근원(source)과 구체적 이유를 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연구 질문 2와 3에 대한 조사는 아래의 절차를 거쳤다.

① 결혼만족의 근원 - 응답 내용의 유목화

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된 모든 응답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빈번히 나타나는 내용을 한데 묶는 유목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결혼만족의 이유를 대상별 또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만족의 근원으로 보았다. 이는 Veroff et al. (1981)이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안녕감의 이유를 안녕의 근원(source)으로 정의한 방법과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3차에 이르는 유목화 합의 과정을 토대로 Weber(1990:23)의 카테고리 정의 방법에 따라 상호배타적인 10개의 상위 근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 근원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카테고리화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카테고리들을 구별하여, 근원의 범주가 넓은 경우 소주제에 따라 하위근원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예컨대, 상위근원으로 떠오른 배우자의 경우, 의미 타당도(semantic validity)를 고려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의 특성' 근원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이처럼 카테고리 상의 넓고 좁음 간격을 맞추어 총 16개의 근원으로 유목화가 가능하였다.

② 유목화 틀에 따른 부호화

유목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응답자의 응답을 유목화 틀에 따라 확정된 16개의 근원에 분류해 넣는 부호화(코딩)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subjectivity)가 응답 내용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생 두 명이 각기 코딩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합의하는 과정을 두 번 거쳤다. 응답내용을 부호화하는 과정은 아래의 원칙과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결혼만족의 근원분석은 의사전달의 드러난 내용(manifest content)을 토대로

하였다. 응답내용에서 근원이 명확한 경우, 즉 만족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유목화 틀에 따라 우선 분류하였다.

둘째, 응답 내용에서 때때로 근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즉 만족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긍정적 감정만을 이유로 제시한 것은 의사전달의 숨어있는 내용(*latent content*)을 추론하여 부호화를 시도하였다(Rubin & Babbie, 1997). 예를 들면, “생활철학의 공유성”이라는 응답은 질문의 특성상 그 대상이 배우자로 추정되어 만족의 근원을 배우자와의 관계로 보았다. 긍정적 정서만 언급된 경우 특정 대상을 향한 정서인지 아니면 응답자의 내적 경험을 표현한 정서인지를 판단하여 분류하였고, 주어가 생략된 채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배우자와 응답자 본인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또한, ‘화목·화평’ 등의 정서가 이유로 제시된 경우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언급 대상과의 ‘관계’ 근원으로 분류하였다.¹³⁾

끝으로, 위의 코딩 원칙에 근거하여 근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답자의 설문지를 직접 살펴보고 응답 이유를 분류하는 데 참작하였다.

위의 원칙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단히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129명 중 무응답자 6명(남자 4명, 여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3명의 응답을 부호화하여 197개의 하위근원으로 분류하였다.¹⁴⁾ 1차 부호화의 경우 두 연구자가 197개의 분류된 응답 중 164개를 동일한 카테고리 분류하여 83%의 일치도를 보였다.¹⁵⁾ 2차 부호화는 코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여 부호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연구교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되었으며, 197개 중 183개의 일치도(93%)를 보였다.

③ 결혼만족의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

결혼만족의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만족의 근원별로 분류된 응답 내용을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한 단계 더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13) 그 외에 응답 이유가 신앙, 종교와 관련되었을 경우 ‘종교’ 카테고리에 분류하였으며, 괄호로 부연설명이 된 응답의 경우 괄호에 앞서 언급된 내용에 근거하여 대상이나 주체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이 세운 유목화 및 부호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원칙은 주저자를 통해 얻을 수 있다.

14) 응답자 수보다 분류된 단위 수가 많은 것은 개인의 응답 내용이 경우에 따라 1개 이상의 근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 코더간의 부호화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류 일치도를 우선 파악한 후에 코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였다.

‘자기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만족의 근원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범주에 포함된 총 11개의 응답들을 다시 의미상 구별이 가능한 내용에 따라 ‘행복’(4개), ‘마음의 평안/평화’(5개), 그리고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1개)으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밝혀진 결혼만족 근원의 어떤 측면이나 특성이 응답자의 결혼 만족에 기여하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였다. 이 때의 하위분류는 응답 내용에 나타난 단어에 근거하였으며, 하위분류간의 상호 배타성과 의미적 독립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¹⁶⁾ 각 만족의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의 분류와 명목은 연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합의에 근거하여 석사과정생 한 명이 구체적 이유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때 제기된 의문점과 분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연구팀과 가진 후 최종 분류를 하였다.¹⁷⁾

④ 유목화된 자료의 양적 분석

결혼 만족의 근원과 구체적 이유에 따라 분류된 응답 내용의 패턴과 빈도 수를 보기 위해 각각의 유목화된 범주에 카테고리 값을 부여하여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4. 분석 결과

1)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의 평균은 3.81 (SD = 84)로 5점 척도에서 4점(어느 정도 만족한다)에 가까웠다. <표 2>는 응답자들이 보고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응답자 전체집단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173명 중 16.2% (n = 28)가 결혼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보고하였으며, 58.4% (n = 101)가 어느 정도 만족함을 표시

16) 응답 내용상 유사함이 느껴지나 함축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구별하여 상호배타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때로 있었다.

17) 구체적 이유에 대한 분류는 주로 단어에 근거하므로 근원 분석보다 분류 기준이 명확하여 코더간의 부호화 신뢰도를 따로 구하지 않았다.

하여 응답자의 대다수(74.6%)가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 응답자의 16.2% (n=28)가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도 불만스럽지도 않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불만스럽다와 대단히 불만스럽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7.5% (n=13)와 1.2% (n=2)로 낮았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대다수(80%)가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들 중 25.9%가 결혼생활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54.1%가 어느 정도 만족함을 표시하였다. 반면, 결혼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보고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6.9%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Rhyne(1981)의 연구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 항목을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선택한 것과 일치한다. 평균적으로도, 기혼남자의 결혼만족도(M=3.99, SD=.85)가 기혼여성의 만족도(M=3.64, SD=.7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t=2.81, p=.005),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여성의 비율은 63.2%로 같은 항목에 대한 남성의 비율보다 높아, 여성 응답자 역시 많은 수(70%)가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전국적 차원에서 총화표집을 한 이동원·최선희(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의 기혼남녀 모두가 결혼생활에 대체로 긍정적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2〉 결혼만족도

전체 및 성별 결혼만족도	전체 (명:%)		남성 (명:%)		여성 (명:%)	
대단히 만족	28	16.3	22	25.9	6	6.9
어느 정도 만족	101	58.7	46	54.1	55	63.2
만족/불만족 없음	28	16.3	13	15.3	15	17.2
어느 정도 불만족	13	7.6	2	2.4	11	12.6
대단히 불만족	2	1.2	2	2.4	0	0
총계	172	100	85	100	87	100
평균	3.81		3.99*		3.64*	
표준편차	.84		.852		.790	

주: 1명이 응답을 하지 않아 172명만 분석에 포함됨.

* p < .01

2) 결혼만족의 근원

결혼생활에 대단히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보고한 응답자 중 결혼만족의 이유를 제시한 123명의 응답은 만족의 근원별로 유목화하여 분석되었다. <표 3>은 유목화 작업에 따라 분류된 10개의 상위 근원과 16개의 하위 근원 및 그 범주에 포함된 응답 내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왼쪽에 열거된 것이 상위근원으로 만족의 근거가 크게 자기 자신, 배우자, 자식, 가족, 가정, 생활상태, 경제상태, 종교, 전반적 평가 등으로 다양하였다.¹⁸⁾ 이 중 자기 자신, 배우자, 자식, 가족, 가정의 경우 응답내용의 범주가 넓어 의미상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내용들을 묶어 아래와 같이 하위근원으로 분류하였다.

자기 자신의 경우 응답자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마음의 평화, 안정 등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가정을 증시하는 가치관, 많이 바라지 않는 태도, 노력 등 응답자의 내적 특성이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므로 만족한다” 등 개인의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문화의 성향이 응답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 응답자 중에는 결혼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 속에서 만족을 찾는 이도 있어, 개인의 성격, 태도, 가치관과 같은 혼전요인들(*premarital factors*)이 결혼만족의 주요인임을 지적한 기존의 문헌들과 유사점이 발견되었다(김영희, 1999; Fitzpatrick, 1988 참조).

배우자는 결혼만족의 주 근원으로 모든 척도에서 고려되는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다양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여러 면에서 이해와 공통점이 있어...”, “부부간의 사랑이 원만하고” 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제시한 응답과 “남편의 성실함”, “남편의 건강함”, “착한 아내” 등 배우자의 특성을 이유로 언급한 응답을 구분하였다.

자식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하여 응답 내용의 범주가 넓었다. 따라서, “아이가 항상 내 곁에 있으므로” 등 자식의 여부, “자식과의 화목”, “아이들과 행복하므로” 등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딸이 잘 커가고 있기 때문”, “착한 아들” 등 자식의 특성으로 만족의 근원을 세분하였다.

18) 결혼생활에 대단히 만족하는 응답자들과 어느 정도 만족하는 응답자들의 결혼만족 이유를 비교하여 보았으나 만족의 근원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두 집단 모두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근원을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3〉 결혼만족의 근원에 대한 유목화

상위근원	하위근원	구체적 내용
1. 자기자신	1) 심리적 상태	-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마음의 평화 -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2) 내적 특성	-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만족과 책임감/성실한 노력 - 많이 바라지 않는다. 행복은 항상 나의 곁에 있다.
2. 배우자	1) 배우자와의 관계	- 남편에게서 편안함을 느끼며 - 부부간에 사랑이 원만하고 - 처와 거의 모든 면에서 대화가 통한다 - 서로 이해하고 생각한다/서로 의지하고 도움된다
	2) 배우자의 특성	- 남편이 건강하고 - 스승같은 남편, 아직은 존경하며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 남편의 모든 면에서의 성실함, 자상함, 가정적인 성격 - 아내가 가정에 헌신적이기 때문에 - 부인의 성격이 원만해서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기에
3. 자식	1) 자식 여부	-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 자식 - 아이가 항상 내 곁에 있으므로
	2) 자식과의 관계	-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니까 - 자식과 함께 화목하니까
	3) 자식의 특성	-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딸 -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에서/심신이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서 -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4. 가족	1) 가족과의 관계	- 가족 모두가 화목하니까/가족 화평 -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 - 시댁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무척 화목하다.
	2) 가족의 특성	-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 가족들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모습 - 식구 큰 질병 없이 건강하고/가족의 건강
5. 가정	1) 가정의 여부	- 가정이 있다는 것
	2) 가정의 상태	- 화목한/행복한 가정 - 편안한 가정/보통의 가정
6. 생활 상태	- 안정된 가정생활	- 특별한 문제없이 보통으로 살고 있기에/평균적인 생활
7. 경제 상태	- 경제적인 만족	- 경제적인 여유/안정
8. 종교	- 같은 신앙/믿음	- 하느님의 선물(아내, 자녀)/하느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9. 전반적 평가		- 특별히 나쁜 일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없다 - 모든 일이 잘되고 순조로워서
10. 기타		- 혼자보다는 여러모로 편리 - 불만스러운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유를 따지는 것이 이상하다. - 결혼하지 얼마 안 되어서

가족과 가정도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가족이 “혈연과 혼인 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가정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아, 응답의 드러난 내용에 따라 이 둘을 별개의 근원으로 취급하였다. 가족을 만족의 이유로 제시한 경우 “가족 모두가 화목하니까”,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 등 가족 관계 근원과 “가족들이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식구 큰 질병 없이 건강하고” 등 가족의 특성 근원으로 세분하였다. 반면, 가정을 만족의 이유로 제시한 경우 가정의 여부와 “가정이 편안하니까”, “화목한 가정”, “보통의 가정” 등 가정의 상태로 근원이 구분되었다.

생활상태와 경제상태에 근거하여 결혼만족의 이유를 제시한 경우 이 두 항목에 포함된 응답 내용의 의미를 고려하여 근원을 구별하였다. 예컨대, 생활 상태로 명명한 근원에는 “안정된 생활”, “특별한 문제없이 보통으로 살고 있기에” 등 일상 생활의 질에 초점을 둔 응답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경제상태로 명명된 근원에 포함된 응답은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안정” 등 응답의 드러난 내용 속에 경제적인 능력과 안정이 만족의 근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끝으로, 종교/신앙, 전반적 평가가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제시된 응답들이 몇몇이지만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신앙심이나 종교적 해석에 근거하여 “하느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같은 신앙” 등의 응답은 종교/신앙 근원에 분류되었으며, 전반적 평가 속에는 “모든 일이 잘되고 순조로워서”, “특별히 나쁜 일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없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 특정 근원에 분류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응답들은 기타에 포함시켰다.

요약컨대,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혼만족의 근원은 국내에 소개된 서구의 결혼만족 척도들이 시사하는 것보다 다양하였다.¹⁹⁾ 만족의 상위근원으로 발견된 배우자는 물론 자식, 가족, 경제상태 등은 서구의 결혼만족 척도에서도 고려되는 영역이어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척도는 결혼만족을 배우자 및 배우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식, 가족, 경제상태 등이 척도의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이나 의사결

19) 박태영(2000)의 논문은 서구에서 개발된 다양한 결혼만족 척도를 소개하고 있어 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의 일치, 아니면 자식 또는 가족과의 시간 공유에 대한 만족 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들 각각이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발견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기혼자 개인의 태도, 가치관, 심리적 상태가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작용하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개인의 종교적 해석도 결혼만족에 기여함을 발견한 것은 의의가 있다.

3) 결혼만족 근원과 구체적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

응답자들이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배우자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자식, 자기 자신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는 결혼만족의 근원에 대한 응답 분포를 전체 응답자와 남성 및 여성 집단으로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 123명의 응답 내용이 197개의 소단위(M=1.6)로 분류되어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근원을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가장 빈번히 언급된 배우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의 39.1% (n=77)로,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가족의 비율(13.7%)보다 훨씬 높았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언급이 20.8% (n=41)로 배우자와의 관계(18.3%, n=36)보다 조금 많았다. 배우자 다음으로 가족(13.7%) 및 자식(12.6%)이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자주 제시되었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6.6%)와 가족특성(7.1%)이 비슷하게 언급되었으나, 자식의 경우 자식의 특성(9.1%)이 자식과의 관계(2.0%)나 자식의 여부(1.5%)보다 훨씬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자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가 기혼자의 결혼만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가족과 자식 또한 전체 언급된 근원의 26%를 차지하여, 응답자들이 이들을 통해 결혼생활의 만족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내적 특성을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제시한 응답은 배우자, 가족, 자식 다음으로 높은 8.7% (n=17)였다. 기혼자들이 결혼만족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언급한 비율은 의외로 적지 않았으나, 이 비율은 보다 자주 제시된 배우자, 가족, 자식에 비하여 낮아, 응답자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배우자와 자식 및 가족 성원의 특성이나 관계를 통해 결혼생활의 만족을 얻음이 드러났다. 또한 <표 4>를 살펴보면 가정(5.6%), 생활상태(7.1%), 경제상태(2.0%), 종교(3.6%) 등에 대한 비율이 배우자, 가족, 자식 또는 자기 자신 등 사람에 초점을 둔 응답에 비해 많이

낮았다. 따라서, 한국인의 결혼만족은 결혼에 의해 기혼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배우자나 가족, 자식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4〉 결혼만족의 근원에 대한 응답분포

만족의 근원		응답자 성별		남녀 전체		남성		여성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자기 자신	1. 자신의 심리적 상태	10	5.1	4	4.5	6	5.6		
	2. 자신의 내적 특성	7	3.6	4	4.5	3	2.8		
	소계	17	8.7	8	9.0	9	8.4		
배우자	3. 배우자와의 관계	36	18.3	25	28.1	11	10.2		
	4. 배우자의 특성	41	20.8	15	16.9	26	24.1		
	소계	77	39.1	40	45.0	37	34.3		
자식	5. 자식 여부	3	1.5	1	1.15	2	1.9		
	6. 자식과의 관계	4	2.0	1	1.15	3	2.8		
	7. 자식의 특성	18	9.1	6	6.7	12	11.1		
	소계	25	12.6	8	9.0	17	15.8		
가족	8. 가족 관계	13	6.6	3	3.4	10	9.3		
	9. 가족의 특성	14	7.1	5	5.6	9	8.3		
	소계	27	13.7	8	9.0	19	17.6		
가정	10. 가정의 여부	2	1.0	2	2.3	0	0		
	11. 가정의 상태	9	4.6	6	6.7	3	2.8		
	소계	11	5.6	8	9.0	3	2.8		
생활	12. 생활상태	14	7.1	4	4.5	10	9.3		
경제	13. 경제상태	4	2.0	0	0	4	3.7		
종교	14. 종교, 신앙	7	3.6	3	3.4	4	3.7		
전반	15. 전반적 평가	10	5.1	5	5.6	5	4.6		
기타	16. 기타	5	2.5	5	5.6	0	0		
합계		197	100	89	100	108	100		

(1) 결혼만족의 근원과 성²⁰⁾

결혼만족의 근원을 <표 4>에 제시된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만족의 상위근원으로 밝혀진 대상이나 특성은 경제상태 및 기타 근원을 제외하고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상태를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는 여성뿐이어서 결혼만족의 근원에 있어 유일하게 성 차이를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응답 내용의 분류결과를 보면, 남자 응답자 64명의 응답은 89개의 근원($M=1.39$)으로, 여성 응답자 59명의 응답은 108개의 근원($M=1.83$)으로 나누어졌다($t=3.007, p=.003$). 또한, 여성은 기타에 해당되는 구별이 모호한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만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결혼만족에 대해 남성보다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언급된 비율이 전체 응답의 45%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와의 관계(28.1%)를 배우자의 특성(16.9%)보다 결혼만족의 이유로 보다 많이 제시하였다. 배우자 다음으로 빈번히 언급한 자기자신, 자식, 가족, 가정 근원의 비율은 모두 9%로 동일하였으며, 배우자에 비해 훨씬 저조하였다. 더욱이, 경제상태를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제시한 응답자가 없었으며, 생활상태(4.5%), 종교/신앙(3.4%), 전반적 평가(5.6%)의 비율 역시 아주 낮았다. 이를 통해 남성은 좀더 단일한 근원, 즉 배우자에 대한 만족 한가지로 결혼생활 전반의 만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 역시 배우자를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하였으며, 이는 전체 응답의 34.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응답은 배우자의 특성(24.1%)에 대한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10.2%)보다 두 배 이상 많아, 배우자를 통해 얻는 만족의 구체적 근원에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배우자 다음으로 자주 언급한 만족의 근원은 가족(17.6%) 및 자식(15.8%) 순이었으며, 가정을 이유로 제시한 비율은 2.8%로 남성에 비해 미미하였다. 여성은 배우자, 가족, 자식에 이어 '생활상태'에 대한 언급이 9.3%로, 남성의 4.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제

20) 성별에 따른 근원분석의 결과 각각의 결혼만족 근원에 포함된 응답수가 5개 미만인 경우가 있어 남녀의 응답 분포에 대한 의미 있는 교차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내용분석을 통해 수량화된 자료의 통계적 유의도를 조사하기보다 기술적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남녀 집단에서 발견된 응답비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상태를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도 3.7% (n=4)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만족의 이유로 '자기자신' (8.4%)이 언급된 비율은 남성집단의 비율과 비슷하였다.

정리하면,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나, 이에 대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다른 만족의 근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더욱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 중에서도, 남성의 응답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여성은 '배우자의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남성 기혼자의 관계 및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 대상이 아내임을 지적하는 기존의 문헌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러한 욕구 충족이 남성들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주 근원이 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배우자를 통해 정서 및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남성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 여성들은 배우자의 특성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였다. 또한, 여성의 응답 속에서 '가족' 및 '자녀'가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된 비율은 남성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어 여성이 보다 다양한 인간 관계를 통해 결혼만족을 얻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성의 양육자적 역할 및 관계 지향적인 성향은 가족 및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들의 특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이를 통해 결혼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남성보다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생활상태' 및 '경제상태'에 대한 여성의 응답 비율은 전체의 13% (n=14)로 남성의 4.5% (n=4)에 비해 높아, 결혼만족의 평가 시 여성은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면도 남성보다 자주 고려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약컨대, 본 연구는 여성이 결혼만족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근원이 남성보다 다양하며, 결혼생활의 실질적 측면도 여성의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데 작용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과 자식을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여성들이 보다 빈번히 언급한 결과는 여성의 관계 지향적 성향이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데 복잡하게 작용함을 암시한 Clements et al. (1997)의 연구와 유사점이 있다.

(2) 결혼만족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와 성

남녀 응답자가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구체적 이유를 근원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결혼만족의 근원분석에서 논의된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근원별 구체적 이유는 남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우선, 자기 자신의 경우, 남녀 모두 마음의 평화, 평안 및 행복 등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이유로 들었으나, 남성 응답자 중에는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을 얻

급한 이도 있었다. 응답자의 내적 특성으로 올바른 가치관, 노력하는 자세, 책임감 등 좋은 성품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남성들의 응답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응답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근거한 이유를 보다 다양하게 많이 제시하였다. 남성의 응답 중에는 배우자와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해, 서로 마음이 맞다 등 배우자와의 공통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의지와 신뢰, 도움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는 배우자를 통해 정서 및 관계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남성의 결혼만족에 기여함을 시사한 근원분석의 결과를 보완해준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온하거나 원만함에 만족하는 응답이 남성보다 많아 여성에게 관계의 안정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특성은 배우자의 좋은 성품, 성실성, 헌신성 및 가정적 충실함 등 배우자의 인간 됨됨이가 배우자의 능력이나 직업, 외모 등의 외적 특성보다 이유로 많이 제시되었다. 남성의 응답에는 아내의 좋은 성품 및 헌신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 반면, 여성의 응답에는 남편의 성실성 및 가정적 충실함이 현저하게 많았다. 배우자의 건강과 관련한 응답은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었다. 여성의 응답 속에는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언급이 7번 발견되나, 남성의 응답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결혼생활의 만족을 평가할 때 남녀가 떠올리는 배우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혼자들이 배우자의 인간성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느끼며,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 또한 결혼만족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응답자들이 자식을 통해 얻는 결혼생활의 만족은 자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식과의 대화 및 관계를 통해 느끼는 사랑이나 행복,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음 등으로 여성이 이에 대한 언급을 남성보다 많이 하였다. 그러나, 자식의 특성과 관련하여 남녀 모두 자식의 올바른 성장, 자식의 착한 성품이나 귀여운 모습 등을 결혼만족의 이유로 비슷하게 제시하였다. 남녀의 차이를 보인 부분은 자식의 건강으로 여성(n=6)이 남성(n=2)보다 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였다.

여성 응답자들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만족은 가족간의 신뢰, 존경, 사랑, 화평 등 정서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남성의 응답 속에서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된 가족의 특성은 남녀 모두 건강에 집중

〈표 5〉 결혼만족의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

상 위	하 위	구체적 이유	남		여	
			응답수	%	응답수	%
자신	자신의 심리적 상태	1. 평화/평안	2	1.9	3	2.46
		2. 만족	2	1.9	0	0
	3. 행복	1	0.9	3	2.46	
	소 계	5	4.7	6	4.9	
자신의 내적 특성	1. 노력	3	2.8	1	0.82	
	2. 좋은 성품/책임감	3	2.8	0	0	
	3. 올바른 가치관	2	1.9	2	1.64	
소 계	8	7.5	3	2.5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1. 사랑	13	12.3	4	3.3
		2. 공통점	5	4.7	2	1.6
		3. 의지/신뢰/도움	5	4.7	1	0.8
		4. 이해	5	4.7	0	0
		5. 대화/의사소통	3	2.8	1	0.8
		6. 평온/평화/안정/원만	1	0.9	4	3.3
	소 계	32	30.2	12	9.8	
	배우자의 특성	1. 좋은 성품(착함, 아껴주는 마음씨)	7	6.6	4	3.3
		2. 배우자의 능력	3	2.8	1	0.8
		3. 배우자의 헌신성	3	2.8	0	0
4. 배우자의 성실성		1	0.9	13	10.7	
5. 배우자의 가정적 충실함		1	0.9	5	4.1	
6. 존경의 대상		1	0.9	2	1.6	
7. 외조		1	0.9	1	0.8	
8. 건강		0	0	7	5.7	
9. 외적특성(험섬함, 회사간부, 진급)		0	0	3	2.5	
소 계	17	16.0	36	29.5		
자식	자식여부	1. 자식/아이	1	0.9	2	1.6
	자식과의 관계	1. 자식의 사랑/아이들과 행복/화목	1	0.9	2	1.64
		2. 자식과의 대화	0	0	1	0.82
	소 계	1	0.9	3	2.5	
	자식의 특성	1. 내적 특성(착함, 귀여움, 올바름)	4	3.8	3	2.5
2. 자식의 올바른 성장		3	2.8	4	3.3	
3. 자식의 건강		2	.9	6	4.9	
소 계		9	8.5	13	10.7	

(표 5 계속)

상위	하위	구체적 이유	남		녀	
			응답수	%	응답수	%
가족	가족관계	1. 사랑/애정/행복/화평	2	1.9	12	9.84
		2. 신뢰/존경	0	0	2	1.64
	소계	2	1.9	14	11.5	
	가족특성	1. 건강	5	4.7	7	5.73
2. 성실성		1	0.9	1	0.82	
3. 긍정적인 생활태도		0	0	1	0.82	
소계	6	5.7	9	7.4		
가정	가정여부	1. 가정여부	2	1.9	0	0
	가정상태	1. 화목/화평/행복	4	3.8	2	1.64
		2. 편안	1	0.9	1	0.82
		3. 보통의 가정	1	0.9	0	0
소계	6	5.6	3	2.5		
생활	생활상태	1. 안정	2	1.9	6	4.9
		2. 골짜없는/보통/평균적인 생활	2	1.9	4	3.3
	소계	4	3.8	10	8.2	
경제	경제상태	1. 경제적 안정/여유	0	0	3	2.5
		2. 경제적 만족	0	0	1	0.8
	소계	0	0	4	3.3	
종교	종교, 신앙	1. 하나님의 섭리	3	2.8	0	0
		2. 신앙/믿음	0	0	3	2.5
	소계	3	2.8	3	2.5	
전반	전반적 평가	1. 전반적 삶에 대한 평가	4	3.8	4	3.2
기타	기타	1. 기타	6	5.7	0	0
총			106	100	122	100

되어 있었다. 식구들의 성실성 등도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이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1) 한편, 남성은 가정에 근거한 응답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남성 응답자 중에는 가정이 있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이도

21) 가족 속에는 배우자, 자식 등이 포함되므로 남성 응답자 중에도 이들의 건강이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작용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여성 응답자처럼 배우자의 건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와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있었으며, 가정의 화목, 행복 등에 대한 언급도 여성 보다 많아, 여성이 가족에 초점을 둔 응답을 많이 한 반면, 남성은 가정이라는 집단에 초점을 둔 응답을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권에서 성장한 기혼 남자들은 결혼에 의해 형성된 가정에 대한 의식이 강한 반면,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이 주임무가 되어 온 여성은 가족에 대한 의식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

결혼만족의 이유로 생활상태를 든 경우는 평균적인 생활, 보통의 생활 등 남다르지 않은 평범한 생활에 가치를 두는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 응답들과 생활안정에 초점을 둔 응답으로 구분이 되었다. 여성이 각각에 대한 응답을 남성보다 많이 하여 생활상태에 남성보다 더 의미를 부여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종교적 이유를 제시한 응답자의 경우 남성의 결혼만족은 하느님의 섭리라는 종교적 의미부여와 해석에 근거한 반면, 여성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응답을 하였음이 발견되었다. 전반적 평가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을 통해 행복, 사랑, 화목, 화평, 안정 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배우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식, 가족/가정, 및 자기자신 등 다양한 근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결혼생활을 공유하는 배우자, 자식, 가족들의 성실성, 착함, 올바른 등 인간적인 됴됨이와 건강은 응답자들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주 요인임을 시사한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의 구체적 이유분석을 통해 남성은 사랑 및 이해 등 관계적 용어를 여성보다 자주 사용하였으며, 여성은 건강 및 성실 등 배우자의 특성과 관련된 언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남성의 결혼만족은 무엇보다 배우자를 통해 정서 및 심리적 지지를 얻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배우자의 건강과 성실성은 결혼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성은 배우자와의 안정된 관계, 자식과 가족의 건강, 생활 및 경제 안정 등도 결혼만족 이유로 빈번히 언급하여, 결혼의 안정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여성의 결혼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5.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기혼남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와 그러한 만족의 근원을 탐색하여 한국인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남녀 응답자의 대다수가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남성은 결혼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결혼만족의 이유로 자유롭게 제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통해 밝혀진 결혼만족의 근원은 기존의 문헌이 시사하는 것보다 다양하였으며, 남녀가 결혼만족을 평가할 때 떠올리는 대상과 주제에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남녀 모두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한 것은 배우자, 가족, 자식 순으로 결혼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게된 사람들이 남녀의 결혼생활 만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에 의해 결혼만족을 느끼는 응답자들도 남녀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둘째, 남성이 제시한 결혼만족의 이유는 배우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다른 어떤 대상이나 주제보다 현저하게 많았던 반면 여성은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 및 자식, 생활상태나 경제적 안정 등도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많이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결혼만족의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분석을 통해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을 통한 사랑, 안정, 화목, 행복, 평안 등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그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 가족 또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혼만족의 주 이유가 됨을 보여주나, 남성의 경우 배우자를 통한 경험이 보다 주를 이루었다. 끝으로, 결혼만족은 응답자인 기혼자들과 생활을 공유하는 배우자, 자식, 가족들의 내적 특성, 구체적으로 좋은 성품 등 인간적 됨됨이와 건강의 여부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이들은 여성의 결혼만족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의 개인적 요인

과 애정이나 정서적 만족을 주는 대인관계 요인이 결혼만족에 기여함을 지적한 기존의 문헌(Fitzpatrick, 1988)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혼만족의 근원에 내재한 보편성을 엿보게 한다. 반면, 직업이나 경제적 자원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도 결혼만족의 예측요인으로 지적되나(Fitzpatrick, 1988), 본 연구에서는 몇몇 여성 응답자만이 배우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안정을 만족의 이유로 거론하여 여성에게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²²⁾

본 연구에서 시도된 양적 및 질적 자료의 동시분석은 기혼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과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식기반을 다지는 데 유용하였다. 예컨대, 결혼만족의 근원분석은 양적인 분석에서 발견된 남성의 높은 결혼만족도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서구의 문헌에서 논의된 결혼만족의 성 차이와 사회화 경험의 연관성(Thompson & Walker, 1989; Veroff et al., 1981)은 한국의 기혼남녀가 보여주는 결혼만족의 질에서도 엿보여, 결혼만족의 특성에 내재한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근원분석은 여성의 결혼만족을 결정짓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하여, 여성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더불어, 질적인 자료는 가족과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성이 결혼만족에도 작용함을 보여준다. 한 예로, 개인의 노력이나 인품, 보통의 생활은 집단의 안녕을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유교문화권에서 보다 강조되며, 개인의 능력이나 욕구 충족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다 강조됨을 학자들은 지적한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응답자 자신의 노력, 배우자나 자식의 좋은 성품, 보통의 가정이나 생활을 결혼만족의 이유로 제시한 사례들은 한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가 결혼만족의 평가에도 영향을 줌을 시사하며, 위에서 언급한 결혼만족의 근원에 있어 보편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근원에 포함된 구체적 어유 내용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녀가 응답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두 집단 모두 가족 및 가정이나 자식이 결혼만족의 근원임을 보고하였는데 이 역시 가족 중심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일 수 있다.²³⁾ 따라서, 한 사회가 어떠한 가치나 목

22) 본 연구의 주 대상이 중산층인 점도 이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요인은 결혼만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이 종종 보고되었다(예: 금혜선, 1984; Campbell et al., 1976).

표를 지향하고 강조하는가에 따라 결혼만족의 질 또한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구 표본과의 비교 연구가 아니므로 결혼만족의 문화적 차이를 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한국인의 결혼만족에만 내재된 특성인지 규명할 수 있는 서구 표본을 포함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결혼만족의 근원은 서구에서 개발된 다차원적인 결혼만족 척도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이들이 간과한 몇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을 준다. 우선, 본 연구는 결혼만족에 있어서 배우자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배우자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서구의 결혼만족 척도들이 임상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느끼는 구체적 이유가 주관적이며 문화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구의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이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서구의 척도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성생활에 대한 만족이 본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성생활의 만족이 한국인들의 결혼만족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나, 성에 대해 폐쇄적인 우리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기기입식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²⁴⁾ 더불어, 기존의 서구 척도들은 기혼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식, 가족 등 주변인의 내적 특성이 한국인의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라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여성은 배우자, 자식,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언급 또한 많이 하여,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최외선·손현숙, 1991)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서병숙·김수현, 2000)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보이나, 이러한 측면 역시 서구의 척도에서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결혼만족척도를 이용하여 결혼이나 가족 문제를 진단할 때, 이들이 간과한 측면의 결혼생활 만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3) 여성의 관계 지향적인 성향과 유교문화권의 상호의존적인 성향간에 유사점이 많음을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Cross & Madson, 1997).

24) 따라서, 배우자와의 사랑을 만족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 중에 성생활에 대한 만족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응답이 남성에게서 빈번히 발견되었으므로 성생활의 만족은 남자에게 보다 중요한 결혼만족의 근원이 됨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부부간의 성생활 빈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지지해 준다(동아일보, 2002).

2) 임상사회사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들의 결혼만족을 사정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데 유념해야 할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한국의 기혼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근원이 서구의 문헌에서 제시되는 것보다 다양함을 보여주어 결혼만족을 부부 중심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 현장에서 기혼자인 내담자, 특히 여성 내담자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표시할 경우 결혼만족을 부부관계나 배우자에 대한 만족으로 추정하기보다 내담자가 만족을 느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내담자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결혼의 질을 보다 정확히 사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결혼만족을 평가할 때 남성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은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을 두루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적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결혼만족의 증진을 위해 남성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안정에 기여하는 요인들, 즉,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나 생활 및 경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인간 관계에서 사랑, 행복, 화목, 화평 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므로, 이를 반영한 부부 및 가족 개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또는 가족이 서로에게 칭찬을 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대화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빈번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결혼을 앞두었거나 배우자를 고르고 있는 젊은이들과의 상담 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 배우자의 능력이나 외적 자질보다 성실성이나 좋은 성품 등 배우자의 됨됨이를 결혼만족의 이유로 훨씬 빈번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배우자의 특성은 물질만능이나 능력위주의 사고가 팽배해지는 요즘의 세대 속에서 간과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제시

한 만족의 이유들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결정하고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결혼만족은 결혼의 안정 및 해체 방지에 기여하는 주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한국인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질과 특성을 밝히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어느 연구에서나 그렇듯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어 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첫째,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한국인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질을 엿보는 데 유용하였으나,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단순하거나 단편적이어서 맥락의존성이 높은 질적 인식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때로 응답의 내용이 단순하여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그에 따른 후속 탐사 질문을 할 수 없어 분석의 타당도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응답자들이 제시하는 결혼만족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 면접조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남녀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표성 표본이 아니며, 그 수가 적어 본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의 근원이 모두 밝혀졌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결혼만족의 근원으로 발견된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은 응답자의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 근원의 구체적 이유 분석은 각 항목에 포함된 응답자의 수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 그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에 한계가 있다. 교육 수준이나 소득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보다 큰 표본을 통해 결혼만족의 근원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의 근원을 탐색해 볼 수는 있었으나, 각각의 근원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알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특성이 남녀 모두에게서 만족의 근원으로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는 성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집단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된 결혼만족의 근원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결혼만족의 근원을 기혼 남녀가 얼마나 중시하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밝히는 연구도 한국인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지식 기반을 다지는 데 유용할 것이다.

넷째, 질적인 자료를 통해 탐색한 결혼 만족의 근원과 구체적 기여 요인들이 실제로 결혼만족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따라야 한다. 특히, 여성의 관계 지향적 성향과 남성의 독립 지향적 성향이 본 연구에서 시사하듯이 결혼만족의 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기혼남녀의 심리적 성향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상사회사업 실천에 유용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다섯째, 기존의 발달 이론들은 나이와 더불어 남녀의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나(Zube, 1982),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밝혀보지 못하였다. 기혼남녀가 느끼는 결혼만족의 질이 연령이나 결혼기간 또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조사는 결혼만족과 성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한국인이 경험하는 사회심리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결혼만족의 이유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적은 표본에 근거한 탐색 연구이기는 하나, 한국인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질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임상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시하는 사회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질적인 접근이 보다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본 연구자들은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금혜선. 1984. "결혼만족도에 따른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권정혜·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18권 1호, pp. 123~139.
- 김득성. 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1),"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연구보고》 제12권, pp. 55~73.
- _____. 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2호, pp. 85~93.
- 김영천. 1999.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이용숙·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pp. 73~106.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6호, pp. 77~95.
- 김충미. 1992. "며느리 입장에서 본 고부갈등의 원인에 입각한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동아일보. 2002. "한국인 54% 성관계 주 1회 미만," 2. 23. 사회면.
- 박태영. 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5집, pp. 27~50.
- _____. 2000. "결혼만족도 측정도구의 고찰 및 평가," 《기독교상담학회지》 제1권, pp. 105~140.
- 서병숙·김수현. 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1호, pp. 55~67.
- 송시내. 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동원·최선희. 1996. "부부평등과 결혼만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9권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미·김정희. 1997.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9권 1호.
- 이은희. 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5권 여름호, pp. 288~314.
- 이인수·윤영주. 1986. "결혼만족도의 당위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제 1호, pp. 1~14.
- 이정숙·박상희. 1994.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논문

- 집》 제1권, pp. 66~74.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1호, pp. 191~204.
- 최규련. 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외선·손현숙. 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4호, pp. 99~114.
- 통계청. 2001. 통계정보시스템(KOSIS) 온라인통계간행물 (<http://kosis.nso.go.kr>).
- 현은민. 1996.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부부간의 가치일치정도, 가정관리 능력과 결혼만족도," *《사회과학논집》* 제8호, pp. 389~403.
- Aron, A. & Henkemeyer, L. 1995. "Marital Satisfaction and Passionate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pp. 139~146.
- Atkinson, T. 1980. *Public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Life*, In H. J. Adler & D. A. Brusegard (eds.), *Perspective Canada III*. Ottawa: Statistics Canada.
- Bernard, J. 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Bantam Books.
- Berscheid, E., & Reis, H. 1998. "Attraction and Close Relationships," In A. Fiske et al.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Boston, MA: McGraw Hill. pp. 193-281.
- Burr, W., Leigh, G., Day, R.,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Burr et a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The Free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Sage.
- Clements, M., Cordova, A., Markman, H., & Laurence, J. 1997. "The Erosion of Marital Satisfaction over Time and How to Prevent It," In R. Sternberg & M. Hojjat (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pp. 335~355.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pp. 5~37.
- Denzin, N., & Lincoln, Y. 1994. "Introduction,"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p. 1~17.
- Diener, E., & Suh, E.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The MIT Press.
- Epstein, N. et al. 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Fitzpatrick, M. 1988. "Approaches to Marital Interaction," In P. Noller & M.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lenn, N. D. 1975. "The Contribution of Marriage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pp.594~600.
- _____. 1990. *The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Contemporary Marriage*, In B. Christensen (ed.), *The Retreat from Marriage*. Rockford, IL: Rockford Institute.
- Gove, W., & Tudor, J. 1973. "Sex Differences in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pp.812-835.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pp.647~650.
-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Ingersoll-Dayton et al. 1996. "Separateness and Togetherness : Interdependence over the Life Course in Japanese and American marriag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3), pp.385~39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Measuring the Trajectory of Marital Quality in Newlyweds*,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Washington DC.
- Karney, B. R. 2001.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search, In S. Beach (ed.),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Washington DC: APA, pp.45~68.
- Kitzman, K.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pp.3~13.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pp.224-253.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Thousand Oak, CA: Sage, 김두섭 역,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Myers, D.,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pp.10~19.
- Rhine D. 1981. "Bas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pp.941~955.

- Roach, A. J., Frazier, L. D.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 537-546.
- Rodeheaver, D., & Datan, N. 1985. "Gender and the Vicissitudes of Motivation," In D. Kleiber & M. Maehar(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s*, Greenwich, CT: JAI Press, vol. 4, pp. 169-187.
- Rubin, A. & Bbbie, E. 1997.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Ryff, C., & B. Singer.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pp. 1-28.
- Sabatelli, R. M. 1988.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pp. 891-915.
- Schumm, W. R., Webb, F. J. & Bollman, S. R. 1998.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Psychological Reports*, 83(1), pp. 319-327.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pp. 15-28.
- Thompson, L., & Walker, A. 1989.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845-871.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ucker, D. & Aron, A. 1993. "Passionate Love and Marital Satisfaction at Key Transition Points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pp. 135-147.
- Veroff, J., Douvan, E., & Kulka, R. A. 1981. *The Inner American :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ew York: Basic Books.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Zube, M. 1982. "Changing Behavior and Outlook of Aging Men and Women : Implications for Marriage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Family Relations*, 31, pp. 147-156.

Content Analysis of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Comparison of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Hyun, Kyoung-Ja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

Kim, Yeon-Soo

(Graduate Stud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

This study examined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and explored how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varied with gender.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173 married people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Although the majority of both men and women in this study were at least somewhat satisfied with their marital life, men were, on averag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than were women. Content analysis of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obtained through an open-ended question, revealed that both men and women mentioned most frequently as their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in this order: spouse, family, and children. However, while a large proportion of men's reasons for satisfaction concerned spouse, particularly affectiv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s, women's reasons indicated more diverse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including spouse, family, children, stability of living and of economy. Analysis of specific reasons for satisfaction in each source revealed that marital satisfaction was intimately connected with one's experience of happiness, love, stability, harmony, and peace, and that respondents experienced such positive emotions, leading to marital satisfaction, not only through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s, but also through other sources, such as children, family members, and respondents themselves. Moreover, good personality and health of spouse, family members, and children were frequently cited as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these reasons were more common among women's

responses. Based on these results, both univers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considered, and gender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marital life were discussed. Finally, implications for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provided.

[접수일 2002.2.28 게재확정일 2002.4.4]